

## 신주류 만들기

김진현  
객원논설위원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기대와는 달리 너무 빨리 문재인 정권의 외교, 인사, '협치'가 혼란스럽다. 원래 그런 유전자(DNA)를 가졌으니 당연하다는 논평이 이른바 보수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다. 독선이란 유전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불행한 역사'라고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문정권의 '적폐청산'이 그런 역사 부정, 파괴의 연장선상이라면 일시적 혼란을 넘어 위기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취임이후 인간 문제인의 행보는 건국이후 '청와대'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위압, 위선, 비선, 불행한 끝 같은 칙칙한 인상을 벗기는데 성공했기에 더욱 융합, 극복, 승화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

그 보다는 그의 겉으로 보이는 진정성이 꿈수로 전도될까 걱정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의 소명과정에서 문대통령이나 안후보자나 '국민의 뜻'을 내거는 것은 지나친 꾸밈 꿈수 냄새가 난다. 이 기회에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의 비실효성을 솔직히 사과하고 왜 협력을 구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드 문제나 문정인 특보 발언 처리과정에서도 진지성보다 지나친 작위 같은 의문이 든다. 일자리정책 작업과 그의 지지 세력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5천억 기금만들기 등에서도 꿈수같은 여운이 그리고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의 탈핵선언과 식장의 꾸밈도 과장과 대극성이 짙게 풍긴다. 6월19일 탈핵선언도 국정선택의 하나일 수 있다.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식전이 한국의 근대에너지 성공사의 한 장을 마감하는 '아름다운 퇴역식'이면서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환경과 안전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개막이라는 양면성이 부각되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한민국 원전1호 참여 원로로부터 자기들은 뒤에 처져있고 반핵시민운동단체 대표들이 대통령 앞자리 차지했다고 분개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역시 에너지 원자력이라는 국가정책과 환경과 안전이라는 가치의 우

선순위를 너무 얇게 보는 것이다. 탈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에너지확보 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이란 개념속에는 원자력사고와 사용 후 핵연료처리의 안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온난화, 대체에너지의 안전 그리고 주변국가, 지구 환경 안전문제(한국의 경우 특히 세계최대원자력대국을 향해 질주하는 중국과 안전 개념 없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까지를 함께 시야에 넣고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적어도 노무현대통령 8주기 묘소 추념사에서 보수진보 20년을 뛰어 넘겠다했고 현충일에 모두의 애국과 보훈을 강조하고 5·18 광주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다짐하는 모습에서는 새 시대, 그 지긋지긋한 이념, 역사갈등을 극복하는 대통령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이제 보수 진보란 말을 쓰고 싶지 않다. 본래적인 개념으로서의 보수·진보와 한국에서의 이른바 보수, 이른바 진보는 너무 멀리 이탈해있다. 양심적 보수와 진보가 고백하고 있듯이 진정한 대화, 솔직한 토론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이 진실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나라 주류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보수는 자멸한데다 여전히 분열하고 있으니 문제인정권의 실수나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이른바 진보도 노무현정권조차 말년에 청와대 앞에서 민노총이 노정권 퇴진기자회견을 했던 기억, 현재 ‘문빠’들의 문자폭탄과 ‘내로남불’현상을 제어 못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

분명히 이 나라의 주류는 있다. 그것은 어느 편이냐 하면 보다 자유주의, 보다 민주주의, 보다 민족주의, 보다 보편주의, 보다 평등주의 쪽이다. 시장을 이기는 민생은 없다(베네수엘라, 짐바브웨 특히 북한을 보라).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극열집단의 방종 폭력을 방관하고는 대의든 직접이든 민주주의로 갈 수 없다. 양극화 갈등속에서 책임있는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촛불의 대의가 꿈수일 수는 없다. 전쟁을 각오하는 결기와 자강없이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 전쟁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정의의 평화’라야 한다는 것이 프란치스코법황의 말씀이다. 김정은을 부둥켜 안는 화해만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의 가치가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새주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친구요 동지를 둔 것 같다. 그의 경남고등학교 동창인 박근혜정권 블랙리스트1호 이운택예술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은 잊되 다른 길’을 가라고 충고했다. 새로운 시민문화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엘리트주의 뿐 아니라 순수주의와 민중 민족주의 등 진영논리를 다 극복한’ 것이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패거리의 사이비종교 같은 독선을 꺾고 꼭

집어서 정리한 것이다. 미국보수정통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장은 자선 경제학자인 아서 브룩스이다. 그가 박사 논문을 발표하면서 스승으로 인연을 맺었던 제임스 월슨 교수에게 “나 같은 보수주의자가 이 진보학계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나”고 물었다. ‘깨진유리창’ 이론으로 유명한 월슨교수의 답은 이랬다. “간단하다. 저들보다 생산성에서 2배, 인격에서 4배 더 훌륭하면 된다”. 월슨 교수는 자기 평생연구결과로는 인간은 신의 산물도 생물학적 존재도 아니고 결국 도덕적존재라 했다. 이 땅의 이른바 보수의 살길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기다리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스스로 파괴한 보수의 도덕적 가치를 새로 세우는 새 주류 만들기에 달렸다. 지난 20년을 넘어 이승만에서 박근혜에 이르는 70년을 비판적으로 여과 발효 승화시켜 사이비 보수·진보를 넘는 새 주류를 창생해야 스스로도 살고 나라가 산다.